

일 주 문



금강선원 유식30송 개강
서울 금강선원 선원장 혜거 스님은 1월 5일부터 매주 수요일 금강선원에서 유식 30송 강좌를 개최한다. (02)445-8484



월정사 인허 선사 추모다례제
평창 월정사 주지 정법 스님은 1월 14일 월정사 적광전에서 인허 선사 추모다례제를 봉행한다. (033)339-6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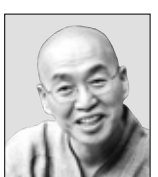
불광사 중창불사 발원 1080배
서울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은 1월 25일 불광사 중창불사 발원 1080배 정진에 입재한다.



능인선원 제6기 참선원 모집
능인선원 선원장 지광 스님은 3월 2일부터 5월 30일까지 제6기 참선원을 개원한다. (02)577-5800



사찰음식 정기 강좌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 소장 정문 스님은 평택 수도사에서 1월 13일부터 매주 목요일 총 7회에 걸쳐 사찰음식 강좌를 연다. (031)682-3349



정도회 서울대 열린법회
정도회 지도법사 범륜 스님은 1월 13일, 27일, 2월 10일 3차례에 걸쳐 서울대 학생회관에서 2011 서울대 겨울방학법회를 개최한다.



비로자나국제선원 영어 담마스쿨
비로자나국제선원 선원장 자우 스님은 1월 10일까지 제5기 어린이 영어 담마스쿨 수강생을 모집한다. (02)6012-1731



김희욱 동국대 총장 취임식
김희욱 신임 동국대학교 총장은 2월 22일 서울 동국대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포교사단 전국대의원 총회
인희웅 포교사단장은 1월 16일 김천 직지사서 2011 포교사단 전국대의원 총회를 개최한다.



대불청 2011 행복찾기
정우식 대한불교청년회 회장은 1월 12일부터 3월 7일까지 매주 수요일 8시 총 10회에 걸쳐 행복찾기 불교교리 수행강좌를 개최한다.

'고용창출 우수 100대 기업' 불교계 선정 특집 인터뷰

“해야할 일에 노력했을 뿐”

연꽃마을 이사장 각 현 스님



“이번 선정은 불교계가 사회복지에 눈을 뜨고, 도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불교계 사회복지의 급성장과 발전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다.”

“고용창출 우수 100대 기업”에 선정된 연꽃마을 이사장 각현 스님(사진)은 이처럼 말하며 이번 기회에 총무원 차원에서 사회복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각현 스님은 “총무원 차원에서 직접 정부에 대응하는 것은 비극이다. 총무원에 복지원을 신설하는 등 복지 정책 강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꽃 마을은 1989년 8월 19일 설립돼 각현 스님이 1990년 8월부터 이사장으로 활동해 왔다. 현재 70여개 산하기관에 750여 명의 근로자들이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9년 9월 이후 복지관 2개소와 데이케어센터 2개소, 요양원 1개소, 장애인 직업 훈련원 등 산하 시설이 증가하면서 최근 1년 간 130여

명의 신규 채용이 발생했다. 연꽃 마을은 고용 증가와 더불어 재직자를 위한 다양한 연수와 불교계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장기 해외파견근무를 실시해 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능력이 뛰어난 능력 위주의 인재 선발에 주력하고 있다. 예불이나 불교적 색채를 거부하지 않고 구성원들과 융화할 수 있으면 타 종교인도 채용하고 있다. 복지는 만민에게 평등하다.”

각현 스님은 복지기관 운영에 있어서도 효율성을 중시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야 할 일(業力)’과 ‘하고 싶은 일(願力)’의 구분과 조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면벽 수행만 정진하면 좋은 수행자가 되겠지만 시대적 아픔을 아우르지 못하는 종교인이 된다. 나는 사회복지를 ‘해야 할 일’로 생각하고 불교와 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스님은 불교계 사회복지가 발전하고 있는

“고용은 모든 복지의 최우선”

인덕원 이사장 성 운 스님



“사회적으로 취업난이 심각하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 창출은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가장 총체적인 복지다. 그만큼 중요하다.”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이사장 성운 스님(사진)은 고용창출 우수 100대 기업에 사회복지법인 중 유일하게 불교계가 선정된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불교 사회복지의 위상이 높아지고, 이웃 종교인과 무종교인에게 불교의 이미지를 향상시켜 종교편향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덕원은 지난해 300여 명의 신규 인력을 고용, 현재 35개 산하 시설에 500여 명이 함께 일하고 있다. 직원들에 대해서는 노인학대 예방교육, 치매관리교육, 웃음치료 등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난 해 채용된 인력 중 50여 명은 은퇴자 재고용이다. 성운 스님은 인력 채용에 있어서 특히 재고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고령 은퇴라고 해도 55~60세다. 아직 한참 일할 나이고, 그들이 가진 노하우가 소중하

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복지에 눈을 뒀다.

“평생 동안 부처님 말씀을 따르며 살아온 불자들이 나이 들고, 병들면 다른 종교 요양시설에 입소한다. 개신교 학교에서 교육받은 자녀들의 영향과 불교계 요양 시설 부족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불자들이 나를 보며 눈물 흘릴 때 정말 가슴이 아파다.”

스님은 지금처럼 불교 복지에 불이 불고,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때 더욱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운 스님에게 불교 사회복지의 한국 불교의 미래이고,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유일한 길이다. 세상도 점점 불교의 실천을 원하고 있고, 실천이 뒤따라야 살아 숨 쉬는 종교가 된다는 것이 스님의 생각이다.

“부처님은 중생제도를 말했다. 이것은 중생 복지를 말하는 것이며 결국 사회복지인 것이다. 수행과 실천의 병행이 중요하다. 사회복지의 불교가 발전하는 길이고 나의 원이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복지법인 중 연꽃마을 인덕원만 선정

각각 130·300명 일자리 창출

만큼 미래 계획을 정확히 수립하고, 한국적·불교적 사회복지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선진국 복지정책을 수용해도 우리나라 특성에 맞지 않으면 정착되기 어렵다는 뜻이다.

“복지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 사회복지법인 연꽃마을은 앞으로도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다. 인덕원에서 타인을 위해 친절과 봉사의 마음으로 일할 수 있다면 나이 종교 성별 직종 어느 것도 차별을 두지 않는다.”

인덕노인종합복지타운에는 ‘예수마을’과 ‘마리아의 집’으로 불리는 병실이 있다. 입소자 중 불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는 환자들을 위한 배려다.

1978년 삼천사로 온 스님은 진관동에서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 쌀을 나누고, 옷

“익산 불교 활성화에 총력”

익산 사암연합회장 지 광 스님

“사찰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계층포교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불교의 비중을 높여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8일 임기 2년의 익산사암연합회장에 추대된 지광 스님(송림사 주지·사진)의 목소리에서 다부진 의지가 엿보인다.

“익산지역에는 미루사지 같은 많은 불교문화유산들이 있습니다. 80% 이상이 우리 불교문화유산인 점을 감안하면 무엇보다 우리전통문화를 이어가는 구심점 역할을 지역의 스님들과 불자들이 이끌어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광 스님은 최근 정부여당의 전통문화에 대한 몰이해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번 일을 기회로 삼아 보다 역동적인 전통문화유산 계승 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기동안 지역 스님들간의 화합에 중점을 둔 계획이라는 지광 스님은 40여 개에 이르는 각 사찰의 숙원사업을 개별사찰이 아닌 사암연합회 차원에서 함께 해결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스님은 “어려운 점을 함께 나누고

자비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한다면 지역의 포교는 저절로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다양한 종교들이 기반을 잡고

있는 지역의 특성상 종교 간 화합에도 중점을 두어 불교, 원불교, 카톨릭, 개신교의 4대종교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종교협의회도 창설할 계획”이라며 “종교음악제를 공동개최하는 등 상대방의 종교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종교 간

거리를 좁혀나가는 계획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재가불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스님은 “지역신도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청년회와 대불련의 지원 강화에도 역점을 두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 포교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스님은 특히 청년층이 많은 인근 지역의 부사관 학교나 7공수여단 등 군부대 정기 법회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군포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끝으로 스님은 “신도회 등 지역 실행단체들과 협의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차근 차근 사업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기 2555(서기 2011)년도 신입생 모집 공고
선운사 佛學(初期佛典) 승가대학원 학인 모집

온전한 敎學과 그 實踐의 바탕은 敎祖 석가모니 부처님의 世界觀과 삶에 대한 바른 이해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초기 불전(Pali Tipitaka) 공부의 필수적인 과정이자 지름길입니다. 초기불전의 바른 이해 없이는 대승불교의 승고한 이상도 뿌리 없는 나무거나 모래위에 쌓은 성이 될 수 있습니다. 선운사 불학(초기불전) 승가대학원은 오랫동안 우리 교학과 수행 체계 가운데 잃었던 고리를 찾아 채움으로써 바른 수행자상을 정립하고 새 시대의 승가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전문교육기관으로 문을 열고, 제1기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이러한 뜻에 공감하고 함께 새 공부 도량을 채워 완성할 스님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대학원 2년 과정

- 교과목: 인도사상사, 인도불교사, 초기 경전성립과 구성, 빠알리 語經(Sutta), 律(Vinaya), 論(Abhidhamma)의 필요한 특강
교수사: 재연, 각목, 미산, 환성
응시자격: 기본교육기관(강원, 중앙승가대학, 동국대 불교학부, 기본선원) 졸업자 및 이와 동등자격이 인정되는 비구, 사미.
제출서류: 입학원서(대학원 소정양식) 1부, 기본교육기관졸업(예정)증서 1부, 사진(반명합판) 2매, 승려증, 주민등록증 복사본 각 1부
원서교부 및 접수마감: 2011년 1월 20일 ~ 2011년 2월 28일
원서교부: 선운사 불학(초기불전) 승가대학원, 선운사 종무소, 선운사 홈페이지

- 원서접수: 선운사 불학(초기불전) 승가대학원, 선운사 종무소(우편 및 방문 접수)
전행일시: 2011년 3월 3일 목요일(음 1월 29일) 오후 1시 선운사 강당
전행방법: 필기 및 면접
입학일: 2011년 3월 19일 토요일(음. 2월 15일)
문의: 전화 063)561-1422 선운사 불학(초기불전) 승가대학원, (학각 도정스님 010-3764-1016 / Fax 063)561-1127) 선운사 종무소
메일: haengwoon@hanmail.net (도정스님)
(우)585-932 전북 고창군 아산면 삼인리 500번지
도술산 선운사 불학(초기불전) 승가대학원
선운사 불학(초기불전) 승가대학원 상세 안내: 선운사 홈페이지

대한불교 조계종 선운사 불학(초기불전) 승가대학원 원장 재연